

줄씨가 집을 떠나 보고 듣고 경험하며
무엇을 새롭게 알아가게 될까요?
줄씨의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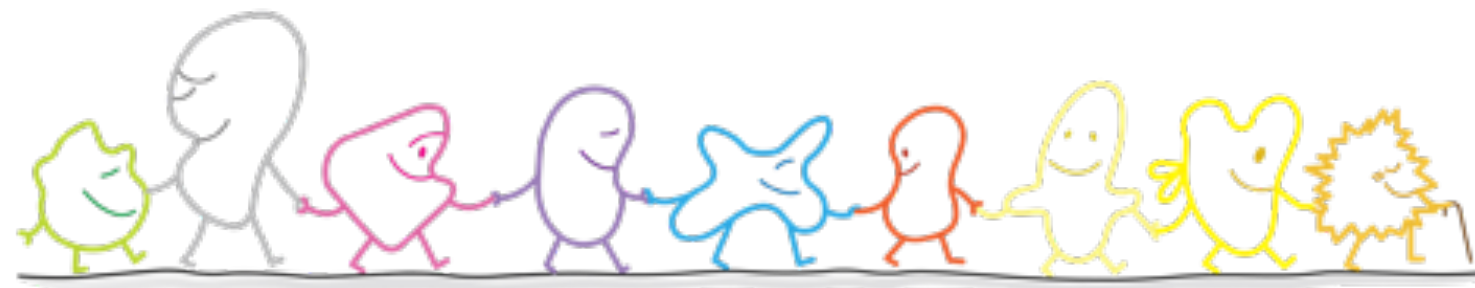
당연한 나라의 줄씨

글 유지희 · 그림 유흥석

작가의탄생

당연한 나라의 줄씨

글 유지희 그림 유흥석



작가의 말



글 유지희

사랑이 가득한 열 살 딸의 엄마예요.
음악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삶 속 찰나의 순간을 글로 씁니다.
<당연한 나라의 줄씨>를 통해 다름의 시선이 아닌 당연하고 따뜻한 정서가 통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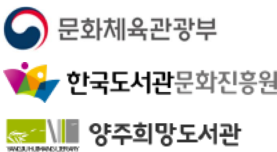


그림 유홍석

귀여운 세 살배기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로 작지만 귀한 선물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세상을 그려 나가고 싶습니다.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그림책이 좋아서

지은이 유지희 유홍석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발행
펴낸곳 양주희망도서관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78-47



제 작 (주) 작가의탄생

[비매품]
*본 도서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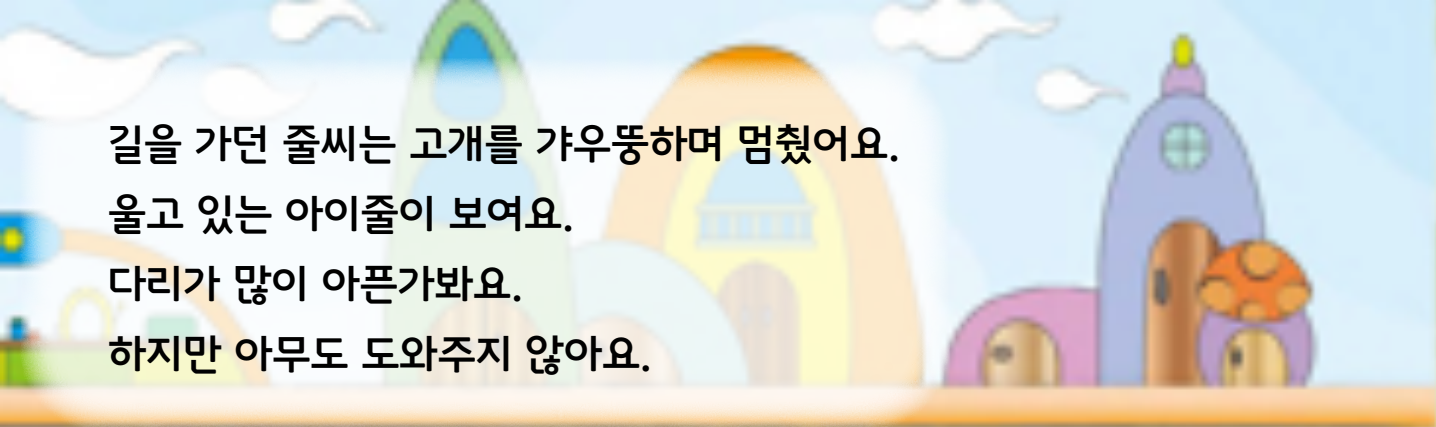
당연한 나라의 줄씨

글 유지희 그림 유홍석



올록볼록 가우똥 나라에
노란 줄씨가 살았어요.
시계새가 “오후~ 오후~”하고 노래를 하면
줄씨는 일하러 나가요.





길을 가던 줄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멈췄어요.
울고 있는 아이줄이 보여요.
다리가 많이 아픈가봐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울지말고, 어서오렴~

맞아, 빨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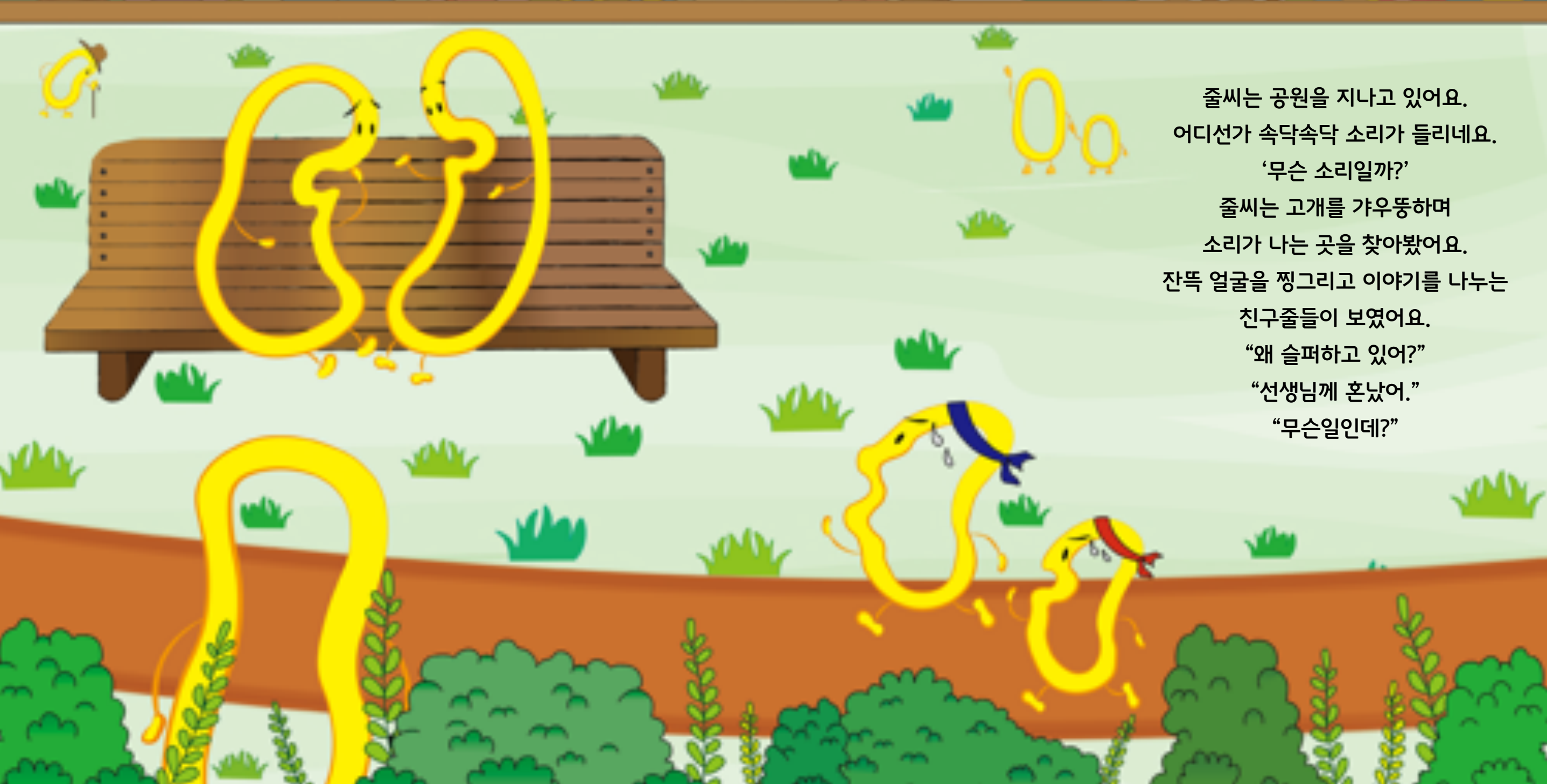
먼저 간다!

재 이상해~

힘들어...



줄씨는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참아야지.
울고 약해지면 안돼! 힘내자!’



줄씨는 공원을 지나고 있어요.
어디선가 속삭속삭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소리일까?’
줄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봤어요.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줄들이 보였어요.
“왜 슬퍼하고 있어?”
“선생님께 혼났어.”
“무슨일인데?”



“수업시간에 창 밖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창틀에 쇠똥구리가 뒤집어져 있는거야.
아둥바둥, 허우적허우적!
나도 모르게 너무 크게 웃었지 뭐야.”

선생님이 눈썹을 찡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쉿! 그만, 그만. 조용, 조용!
수업시간에는 크게 소리내서 웃지 않는거야.”
“네, 죄송해요.”





“에휴우, 소리내지 말고 웃지 그랬어.”

“저절로 웃음이 나온걸 어떻게 하란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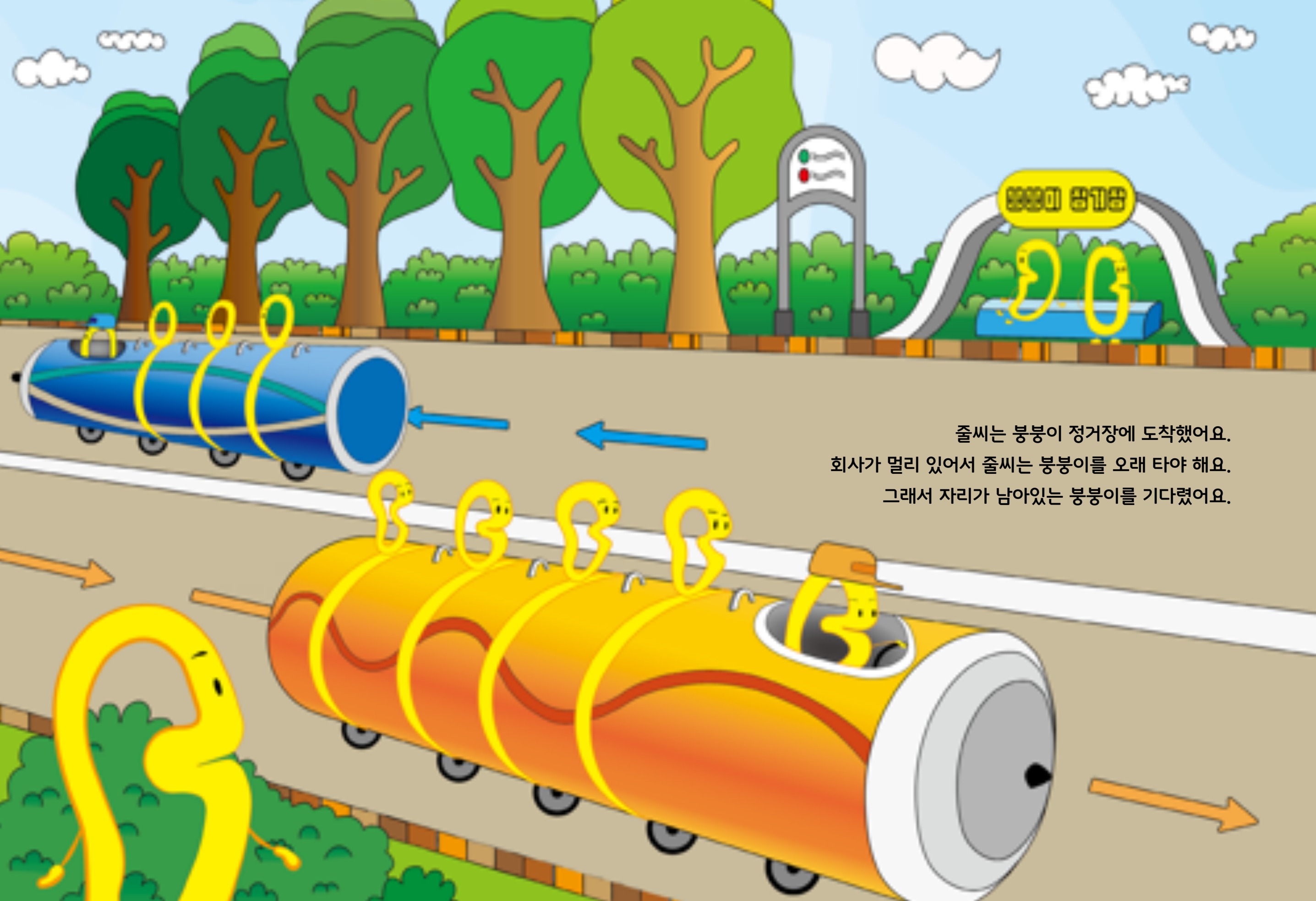
줄씨는 쇠똥구리를 상상하니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른 웃음을 먹어버렸어요.

‘허,헴. 웃음을 참아야지, 사람이 많을 땐 조용히!’

줄씨는 타닥타닥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나갔어요.



줄씨는 붕붕이 정거장에 도착했어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줄씨는 붕붕이를 오래 타야 해요.
그래서 자리가 남아있는 붕붕이를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붕붕이를 타고 가던 줄씨는
코를 골며 잠을 잤어요.
‘코오, 코오.’
그 사이 붕붕이는 뽕죽둥글산과
삐죽빼죽 고불나무를 지나가요.





도로로로록, 위잉~

‘여기가 어디지?’

줄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모든 것이 신기한 것으로 가득한 곳이었지요.

줄씨는 낯설어서 마음이 쿵닥쿵닥 뛰었어요.



빠방대기소에 서 있는 줄씨 곁으로

요상하게 생긴 줄들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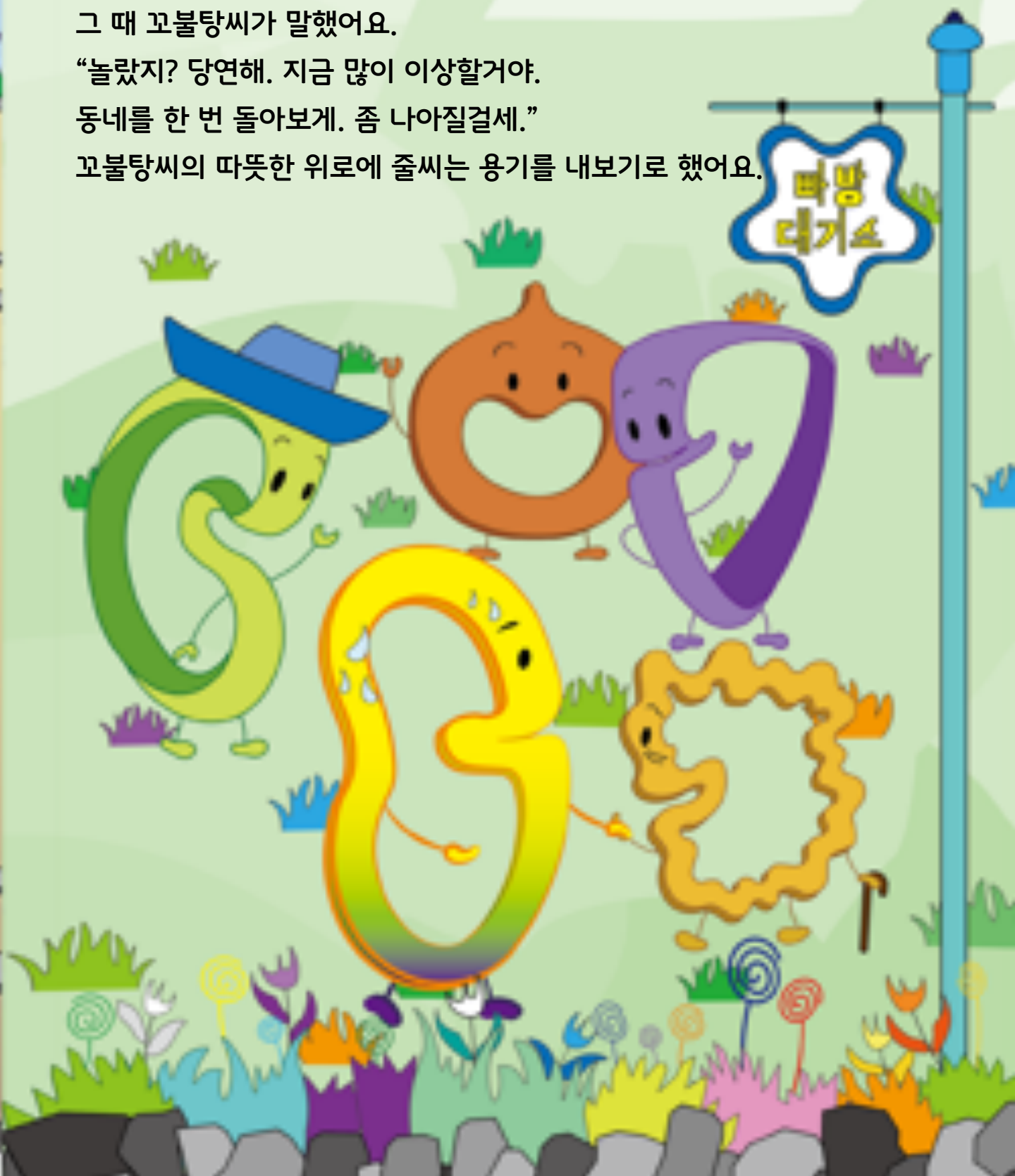
하지만 줄씨는 너무 긴장해서 인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때 고불탕씨가 말했어요.

“놀랐지? 당연해. 지금 많이 이상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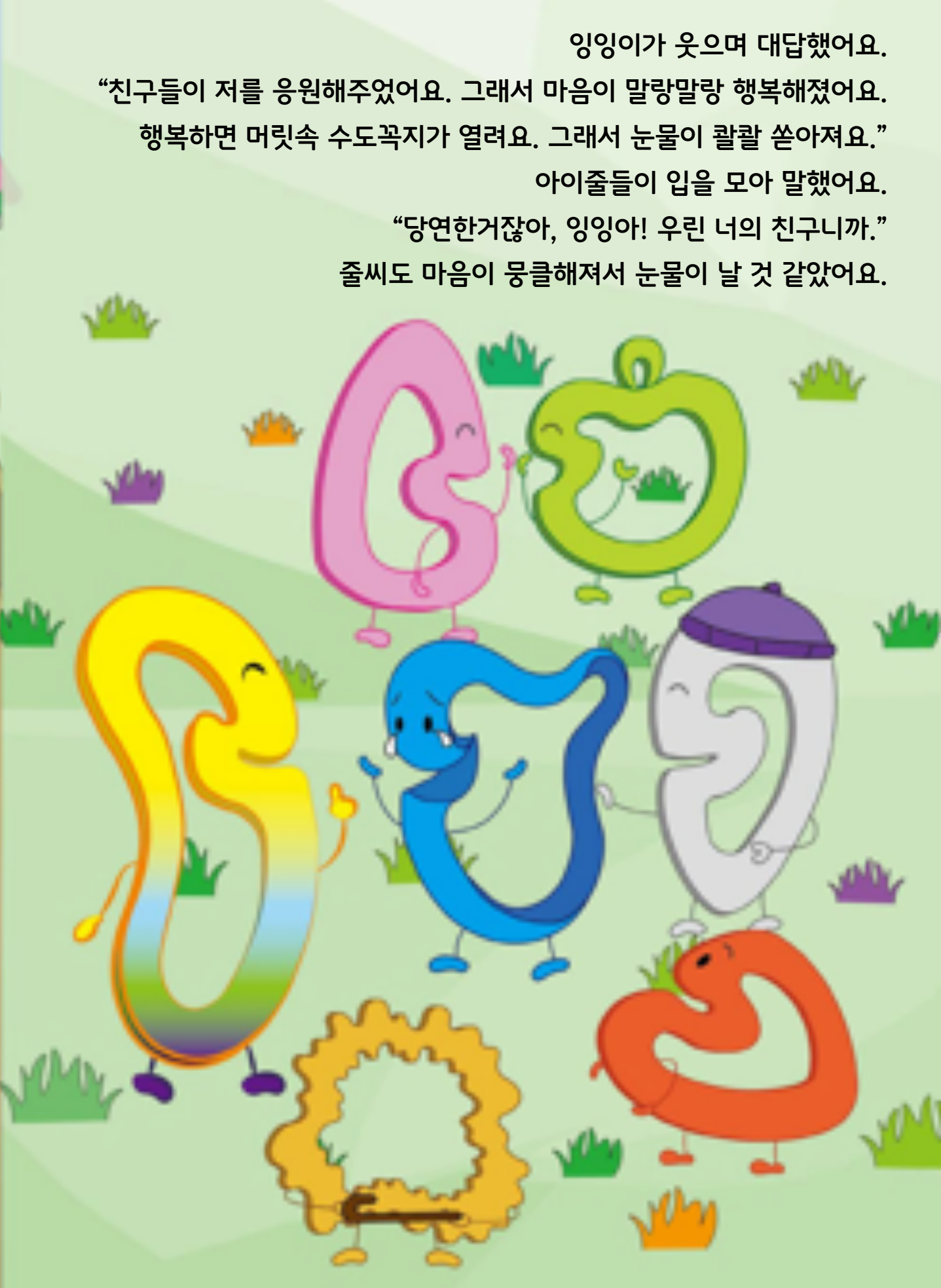
동네를 한 번 돌아보게. 좀 나아질걸세.”

고불탕씨의 따뜻한 위로에 줄씨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고불탕씨와 줄씨는
모여있는 아이줄들을 보고 다가갔어요.
“고마워서 눈물나 친구들아. 흑흑.”
“괜찮아. 잉잉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줄씨는 조심스럽게 아이줄들에게 물었어요.
“고마운데 왜 우니?”



잉잉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말랑말랑 행복해졌어요.
행복하면 머릿속 수도꼭지가 열려요. 그래서 눈물이 콰콰 쏟아져요.”
아이줄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당연한거잖아, 잉잉아! 우린 너의 친구니까.”
줄씨도 마음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하하하하.”

놀이터에서 큰 웃음소리가 나고 있어요.
줄씨와 꼬불탕씨는 놀이터로 가보았답니다.

“저 미끄럼틀 너무 무서워.”

“더 크게 웃자.”

“하하하하하하.”

아이줄들은 더 크게 웃었고 줄씨는 왜 웃는지 궁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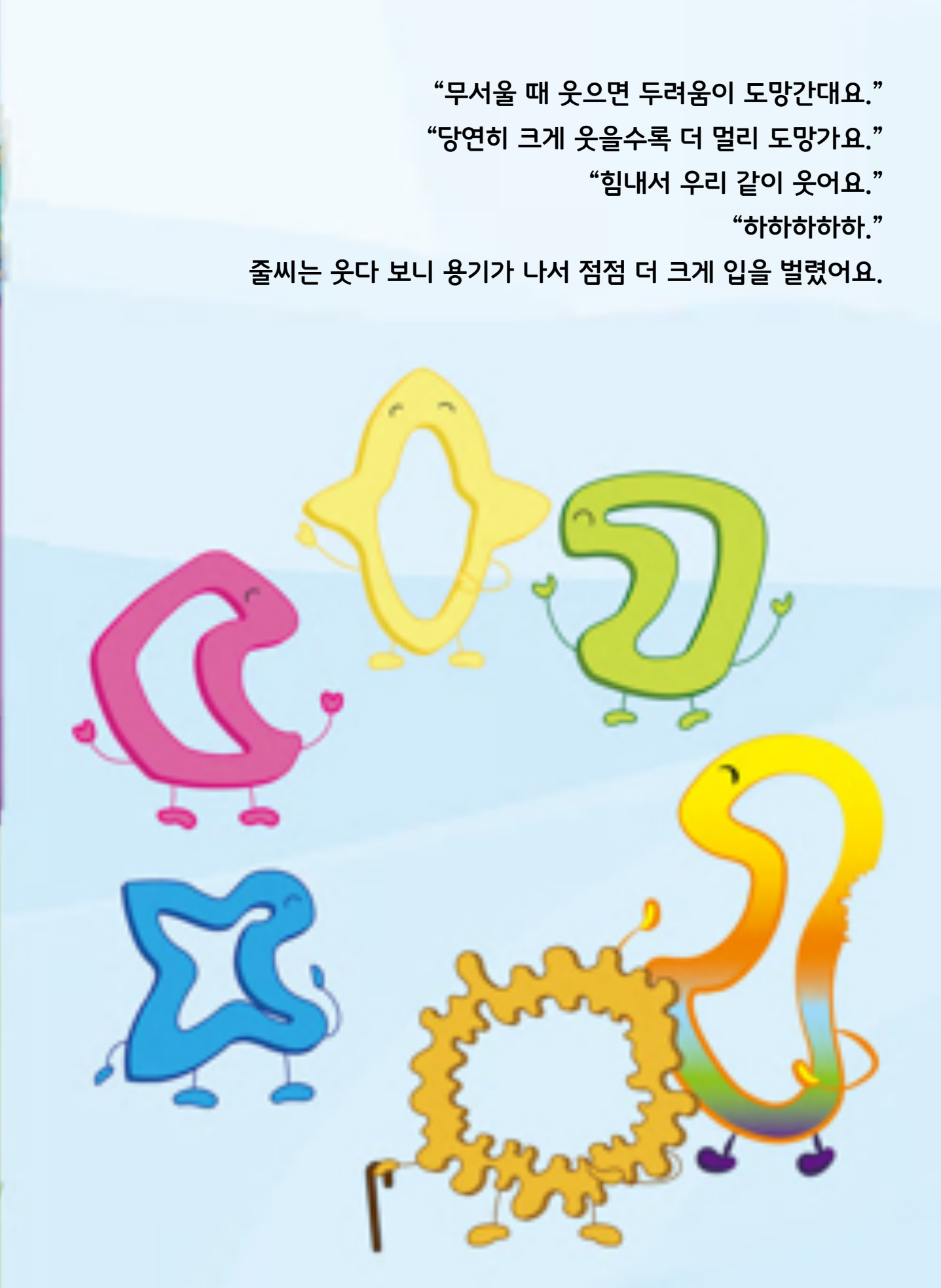
“무서울 때 웃으면 두려움이 도망간대요.”

“당연히 크게 웃을수록 더 멀리 도망가요.”

“힘내서 우리 같이 웃어요.”

“하하하하하.”

줄씨는 웃다 보니 용기가 나서 점점 더 크게 입을 벌렸어요.





‘팅, 탁, 철푸덕!’

“음.”

줄씨가 땅으로 넘어졌어요.

몸을 너무 크게 늘려 웃었나봐요.

줄씨의 허리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엇!”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괜찮으세요?”

모두 놀랐지만 줄씨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잠시 뒤 줄씨는 정신을 차리고 거울앞으로 갔어요.
줄씨는 달라진 모습에 어쩔 줄 몰랐지요.
동그랗고 노랗던 줄씨가 아니었어요.



“와! 너무 멋져요.”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축하합니다.”
줄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리가요. 당연한 나라에서 이상한 모습은 없어요.
당연하게도 모두 특별할 뿐이죠.”
줄씨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두근두근 마음**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